

'경영위기 아니다' 주장에 병원계 초비상



글 · 김기원
의사신문 취재부장

병원계가 '병원경영 위기'라는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병원이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의약분업이후 수많은 병원이 도산하고 폐업하는 현실과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제반 수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에 순응해오던 병원협회가 「병원 생존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병원계의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병원경영 위기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병원경영 위기 사회적 공감연도록 해야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작 병원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병원경영 위기'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병원계 내부의 목소리에서만 한정되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이

다.

즉, 병원계를 벗어나면 '병원은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사회 각계 각층에 놀랄만큼 광범위하고 단단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병원계의 우려와는 근본적으로 동떨어진 사회 각계각층의 '긍정적 인식' (?) 아래 병원계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놀랄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병원계만 홀로 속타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곧바로 병원계에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 병원계를 초비상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3월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정경배) 주최로 동연구원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약분업 이후 병원경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병원경영 위기’에 대해 ‘병원위기가 아닌 국민의 위기’라는 입장을 피력, 병원계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차를 드러냈다.

이날 서울대 안태식교수와 보건산업진흥원 공동팀은 그동안 병원계가 절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병원경영 위기론’에 대해 “경영수지와 원가분석 결과, 병원은 위기가 아니다”라는 대립된 주장을 펼쳐 병원계의 주장을 단숨에 무력화시켜 버렸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는 의료체계상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병원들이 도산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상 굳이 2단계 병원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입장을 개진, 참석자들을 당혹시켰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안태식교수는 ‘병원의 경영수지 및 원가분석’이란 제3 주제발표를 통해 “경영수지와 원가분석을 한 결과, 병원의 위기는 상대적 위기”라고 지적하고 “병원위기의 본질이 의사의 인건비 추가상승이라면 상대가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못뚫는 등 병원계의 위기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이날 토론자로 나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정책위원은 ‘과연 위기인가? 구조조정의 건전한 신호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중소병원의 도산은 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 3단계 의료전달체계가 과연 우리 실정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병원경영위기론’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을 뚜렷이 했다.

이러한 발표들에 대해 병원협회 成益濟사무총

장은 토론발표를 통해 안태식교수의 ‘병원원가분석’과 관련, “자료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나 일부층의 경우, 표본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분석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와 △환산지수 산정의 문제 등 연구상의 제반문제점에 대해 맹박했다.

또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 병원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결론짓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이라며 “만약 잘못된 분석결과로 인해 전국병원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병원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成총장의 이러한 맹박과 우려는 학계-정부-시민단체의 논리에 둘러싸여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논리에 휩싸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병원계 실상 정확한 이해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병원계에 반하는 주장이 잇달음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병원은 영양실조로 餓死상태에 빠져 있어 긴급 수액으로 보충, 기력을 찾게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병원계의 논리와 그에 따른 병원계 전체의 위기상황 극복노력은 자칫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이라면 병원계가 대국민·대정부·대시민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병원경영 위기’라는 사상초유의 사건과 예

상치 못한 상황전개로 동요하고 있는 병원계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도 국민과 정부 그리고 시민 단체가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비법(?)을 간파,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강도 비법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병원 생존을 위한 투쟁위원회(병생투)의 의욕적인 대 국민·대정부·대시민단체의 홍보 성과를 주목하게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